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대통령 브리핑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위하여 감사는 적발 위주가 아니고 성과와 평가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원장 임명건에 관해서 국회의 도움을 호소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혁신돼야 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려면 우리 공직사회의 효율성이 두 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10년내에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5년내에 우리 공직사회의 효율성이 두 배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가 그동안에 적발위주의 감사, 문책위주의 감사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 일반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사회의 창의력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자세를 확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혁신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기능 자체를 적발위주가 아니라 평가위주, 성과중심의 감사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우리 공직사회가 활력 있고 창의성 있는 공직사회로 혁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규범을 가지고 소위 평가하는 과거의 일을 평가하는 그런 사법적 기관의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니라 소위 정부의 혁신과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데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분야에 관해서 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고 대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을 감사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정부혁신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감사체제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을 마음먹고 천거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관점에서 윤성식 지명자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감사원장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혁신을 위한 감사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러 왔습니다.